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4, pp.193-237
<https://doi.org/10.29212/mh.2025..134.19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속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방위적 독립전쟁론’과 ‘항일무장투쟁’ 서술 비교분석 및 제언

김용진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 박사수료)

- 목 차
- I. 머리말
 - II. 목차 구성과 서술체계, 집필진 검토
 - III.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국외 독립군 설치와 군사 활동
 - 1. 육군: 남만주 지역 광복군 총영, 광복군 사령부, 참의부
 - 2. 공군: ‘월로우스 한인 비행기 양성소’ 설치와 공군 건설 계획 추진
 - IV. ‘독립전쟁’과 ‘항일무장투쟁’ 용어에 대한 시론적 검토
 - 1. 임정과 ‘전방위적 독립전쟁론’
 - 2. ‘국내진공작전’과 ‘의열투쟁’ 용어 검토
 - V. 맺음말

초 록 한국사 교과서는 그동안 임정이 외교 활동에 치중한 나머지 마치 군사 활동을 등한시한 것처럼 서술되어져 왔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승만의 외교독립론, 이동휘의 항일무장투쟁론, 안창호의 실력양성론 등으로 도식화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중국에는 1923년 국민대표회의 개최에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독립전쟁’은 대전략론으로서의 독립전쟁론에 따라 항일무장투쟁·외교독립운동·실력양성운동 등이 일제강점기 전 시기에 걸쳐 활발하게 전개된 것을 총칭한다.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은 국내진공작전과 의열투쟁이라는 구체적인 방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국내진공작전과 의열투쟁이 커다란 두 개의 기둥처럼 항일무장투쟁론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립전쟁론은 항일무장투쟁 뿐만 아니라 외교독립운동과 실력양성운동이 따로 구분지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구동축(驅動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독립전쟁론은 전한국민들이 참여한 ‘전방위적인 독립전쟁’이었다.

주제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한국독립운동사, 전방위적 독립전쟁론, 항일무장투쟁, 의열투쟁,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진공작전

(원고투고일 : 2025. 1. 9. 심사완료일 : 2025. 2. 24. 게재확정일 : 2025. 3. 4.)

I. 머리말

최근에 교육부는 2025년에 고등학생이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의 검인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는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총 9종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인정을 받았다. 직전에 학교 현장에서 사용된 '15년 개정 2019년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와의 차이점이라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가 새롭게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검인정을 통과한 9종의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는 서술에 있어서 식민주의 사관, 편향적인 태도, 8·15 광복절 건국론 등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¹⁾ 이러한 경향은 여타의 일부 교과서에서도 나타나, 언론에서는 이를 연일 보도하였다.²⁾ 이처럼 한국사 교과서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분위기, 정치권의 영향, 집필진의 역사관 등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이유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체계와 내용은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역사학계에서는 교과서가 발간될 때마다 이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역사교육은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구나 역사교육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역사 교과서가 역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1) [경남]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채택 고교 '0', 『오마이뉴스』, 2024.10.28.
2) 『여순사건 '반란' 표현 출판사 5곳, 교과서 수정·삭제』, 『한겨레』, 2024.10.23.; 「“3·15의거 빠진 한국사 교과서 즉각 반송하라”...반발 확산」, 『연합뉴스』, 2024.10.28.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의 서술 경향을 살펴봐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경향과 각 출판사 집필진의 역사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들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할 청소년들은 아직 정서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요청된다. 고교 졸업 후에 대학(원)에서 역사를 전공하는 이가 아니라면, 청소년 시기에 배웠던 한국사 지식이 향후 각 개인들의 한국사 지식의 전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 독립운동사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 친일 시비, 월북 문제 등을 다루고 있기에, 더욱 신중하게 서술해야 한다. 또한 국가 장래의 기간(基幹)이 될 청소년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민족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5년 개정(2019년 검정)으로 2024년까지 사용되었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의 독립운동사 서술 경향과 체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 역사교과서 파동’ 이후에 편찬된 첫 역사 교과서라는 점³⁾, 둘째, 이전의 교육과정 개정에 비해 한국사의 중요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즉, 15년 개정 이후부터 한국사가 국어·영어·수학 등의 과목과 더불어서 ‘공통과목’으로 편제되었다.⁴⁾ 셋째, 이전의 교과서가 수많은 독립운동

3)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go.kr), 2015 개정 교육과정 안내 브로슈어(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반영되었다.

4)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go.kr), 2015 개정 교육과정 안내 브로슈어(고등학교), ‘공통과목’이란 모든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것으로, 문·이과 구분없이 모든 고등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한 과목들을 말한다. 공통과목은 총 7과목으로, 국어·영어·수학·한국사·통합사회·통합

단체들을 나열했던 것에 비해서 해당 교과서는 민족운동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운동 방략과 이념만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무장투쟁', '의열투쟁', '실력 양성 운동', '사회주의 운동', '민족유일당 운동' 등의 다양한 민족운동이 일제 식민지 지배라는 시대적 특성 속에서 갖는 역사적 의의에 방점을 두었다.⁵⁾

본 글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의 독립전쟁론과 항일무장투쟁 용어의 적합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에 새롭게 집필하게 될 교과서에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임정의 독립전쟁론은 국외 지역 항일무장투쟁의 원류(源流)라는 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항일무장투쟁은 한국민들이 약 35년간의 일제의 침략과 지배를 격렬하게 거부하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투쟁방식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외 지역 항일무장투쟁 서술을 분석함으로써 역사교육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우선 한철호는 7차 교육과정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6종의 구국·독립운동사 서술이 교육내용전개준거안과 사회과(한국근현대사) 교육과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부응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는 이들 교과서가 임정이 외교 활동에만 치중한 것처럼 서술하였다고 보았다.⁶⁾ 황민호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2010년 부분 개정)에 따른 2011년에 간행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한 만주 지역 항일무장투쟁의 서술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는 각 교과서별로 1910년대 독

과학·과학탐구실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5) 한승훈·남기현,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근대사 체계와 내용 분석」, 『역사교육연구』 제38집, 한국역사교육학회, 359·366쪽.

6) 한철호, 2009,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한국학논총』 제32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립군기지 건설, 봉오동전투·청산리대첩, 1930년대 민족유일당 운동, 민족진영의 항일무장투쟁 및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인물·단체·지도·사진들의 오류를 지적하였다.⁷⁾

한편 신효승은 15년 개정 9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전체 판매량 82%를 점유한 『미래엔』, 『비상』, 『천재』 등 3종의 교과서만을 중심으로 무장독립운동 서술과 관련 지도, 사진을 검토 및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가 무장독립운동을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으로 구분하여 서술한 점을 지적하였다. 즉, ‘무장투쟁’과 ‘의열투쟁’ 등의 노선 구분은 전체적인 무장 독립운동사의 전개과정을 고려했을 때 무의미하다고 보았다. 그는 개인 혹은 단체 중심의 노선과 삼일운동 이후 임정 중심 노선 등의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을 피력하였다.⁸⁾

필자는 기왕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15년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과 『고등학교 역사부도』 3종⁹⁾의 독립전쟁론과 항일무장투쟁사 서술 현황을 파악하고, 학계의 연구 성과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주로 임정의 독립전쟁론과 항일무장투쟁 용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7차 교육과정으로 2003년(2002년 검인정)에 간

7) 황민호, 2012,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만주 지역 독립운동사에 대한 서술체계와 내용」, 『승실사학』 제29집, 승실사학회.

8) 신효승, 2020, 「『고등학교 한국사』의 서술 분석 -무장 독립운동의 개념과 이미지 자료의 활용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제156집, 역사교육연구회.

9) ① 엽복규 외 8명, 2024, 『고등학교 역사부도』, 비상; ② 최병택 외 7명, 2024, 『고등학교 역사부도』, 지학사; ③ 이우태 외 4명, 2024, 『고등학교 역사부도』, 천재교육. 이들 『고등학교 역사부도』는 한국사 2015년 과정에 따라 2017년도에 교육부 검정을 받았다. 2015년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와는 다르게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었다.

행된 『한국근·현대사』 3종¹⁰⁾, 『고등학교 역사부도』 4종¹¹⁾과 2009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14년(2013년 검인정)에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4종¹²⁾, 『고등학교 역사부도』 1종¹³⁾ 그리고 최근에 출판한 2022년 개정(2025년 발간) 『한국사2』¹⁴⁾ 등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는 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변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 2020~2024년까지 각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용되어 온 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와 『역사부도』에 대한 서술체계 검토와 제언이 향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올바른 역사 서술의 개선과 보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 10) ① 김한중 외 5명, 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② 김광남 외 4명, 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두산; ③ 주진오 외 4명, 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11) ① 오금성 외 3명, 2002, 『고등학교 역사부도』, 금성출판사; ② 이연희 외 4명, 2002, 『고등학교 역사부도』, 삼화출판사; ③ 김유철 외 4명, 2002, 『고등학교 역사부도』, 천재교육; ④ 이법직 외 3명, 2002, 『고등학교 역사부도』, 지학사.
- 12) ① 왕현중 외 6명, 2014,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출판; ② 최준채 외 4명, 2014,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③ 도면희 외 7명, 2014,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④ 주진오 외 8명,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교육.
- 13) ① 이법직 외 8명, 2014, 『고등학교 역사부도』, 금성출판사.
- 14) 『한국사2』는 주로 근현대사를 다루는 반면에, 『한국사1』은 전근대사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사1』에서는 전근대사부터 일제강점기 경제·문화까지 다루었고, 『한국사2』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부터 광복 이후 현대사를 기술하였다. 이것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중학교와의 계열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송호정, 2022, 『역사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며』, 『역사와 현실』 제125집, 한국역사연구회, 7쪽). ① 조건 외 16명, 2025,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출판; ② 김보림 외 7명, 2025,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③ 강승호 외 7명, 2025,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 ④ 도면희 외 7명, 2025,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⑤ 신주백 외 11명, 2025, 『고등학교 한국사』, 씨마스; ⑥ 최병택 외 9명, 2025, 『고등학교 한국사』, 지학사; ⑦ 정요근 외 9명, 2025, 『고등학교 한국사』, 천재; ⑧ 강병수 외 4명, 2025, 『고등학교 한국사』, 한국학력평가; ⑨ 조한경 외 9명, 2025, 『고등학교 한국사』, 해냄에듀.

Ⅱ. 목차 구성과 서술체계, 집필진 검토

2015년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의 목차는 총 4개의 큰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근대사와 관련된 것은 제3단원에 해당된다. 이 제3단원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라는 대주제로 정해졌는데, 여기엔 일제 식민지 통치정책과 이에 대항한 독립운동이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서술되어있다.

여기서는 독립운동사 내용 가운데 국외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검토·분석하고자 한다. 각 출판사별로 한국사 교과서 9종의 제3단원 목차에서 국외 지역 항일무장투쟁만을 추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15년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목차 구성

교과서명	목차 구성	쪽수
① 금성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제 4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166~237쪽
	3. 민족 운동의 성장 주제 44)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의 전개 주제 45) 일제를 놀라게 한 의열 투쟁 6. 광복을 위한 노력 주제 55) 항일 연합 전선의 형성	180쪽 184쪽 188쪽 228쪽
② 동아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44~211쪽
	3) 대한민국 임시 정부 -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외교 활동과 군사 활동을 벌이다 3.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	161쪽

	1) 무장 독립 투쟁과 의열 투쟁 6. 광복을 위한 노력 1) 1930년대 무장 투쟁 2) 독립을 위한 노력	164쪽 200쪽 202쪽
③ 리베르스쿨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②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3.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 다양한 독립 활동을 전개하다 ③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 1. 무장 투쟁의 전개 2. 의열 투쟁의 전개 ⑥ 광복을 위한 노력 1. 계속되는 무장 투쟁과 임시 정부의 활동	152~217쪽 171쪽 174쪽 178쪽 210쪽
④ 미래엔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0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3.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 무장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다 03.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 1. 무장 독립 전쟁 2. 의열 투쟁 06. 광복을 위한 노력 1. 한·중 연대와 민족 통일 전선 형성 노력 2. 광복을 위한 노력과 건국 준비 활동	155~227쪽 175쪽 178쪽 182쪽 218쪽 221쪽
⑤ 비상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③ 민주 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하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3.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 ① 무장 독립 투쟁을 전개하다 6. 광복을 위한 노력 ① 만주에서 항일 투쟁을 벌이다 ②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160~229쪽 178쪽 181쪽 217쪽 219쪽
⑥ 씨마스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2-3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3. 식민 통치의 변화와 민족 운동의 성장 3-4 1920년대 국외 민족 운동 6. 민족 운동 세력의 결집과 신국가 건설 구상	165~235쪽 182쪽 195쪽

	6-2 1930년대 국외 민족 운동 6-3 1940년대 민족 운동 세력의 결집	225쪽 228쪽
⑦ 지학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03.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 외교 활동과 무장 활동을 전개하다 3.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 01.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 6. 광복을 위한 노력 01. 항일 연합 전선의 투쟁 02.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재정비와 한국 광복군	160~227쪽 178쪽 180쪽 214쪽 218쪽
⑧ 천재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03.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3.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 01. 무장 투쟁과 의열 투쟁 6. 광복을 위한 노력 01. 민족 운동 세력의 결집	168~235쪽 185쪽 188쪽 225쪽
⑨ 해범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주제05 임시 정부, 대한민국을 선포하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어떤 일을 하였을까? 주제06 무장 투쟁으로 일제에 맞서다 주제16 항일 연합 전선을 만들어 투쟁하다	156~229쪽 175쪽 178쪽 218쪽

한국사 교과서 9종 모두 항일무장투쟁과 관련해서는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라는 대단원하에 1)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3) 1920·30년대 항일 무장 독립 투쟁 4) 의열 투쟁 5) 1940년대 항일 연합 전선 등 크게 5가지로 중주제를 정했다. 각 교과서 출판사별로 소주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목차의 큰 틀에는 차이가 없었다.

1)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은 크게 국내와 국외 지역으로 나누어서, 국내는 1910년대 비밀 결사로 대한 독립 의군부(임병

찬), 대한 광복회(박상진) 등을 다루었으며, 국외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목표로 한인 이주가 많았던 만주·연해주·미주 지역 등을 살펴보았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에서는 삼일운동의 결과로 중국 상하이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수립하여 외교독립운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소개하였다. 이후에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론으로 인하여 임시정부의 외교 노선이 비판을 받으며, 1923년에 이르러서는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음을 서술하였다. 3) '1920·30년대 항일 무장 독립 투쟁'에서는 주로 1920년대에는 홍범도·김좌진, 대한 독립군·북로군정서, 봉오동·청산리 전투, 훈춘사건·간도참변·자유시참변을, 1930년대는 참의부·정의부·신민부, 국민부·혁신의회, 조선혁명당(군)·한국독립당(군), 양세봉·이청천, 만주사변 등을 다루었다. 또한 만주 지역 공산주의 항일유격대로 동북인민혁명군(1933), 동북항일연군(1936), 보천보 전투(1937) 등을 살펴보았다. 4) '의열 투쟁'에서는 크게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의열단에서는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 김원봉, 박재혁(부산경찰서)·최수봉(밀양경찰서)·김익상(조선총독부)·김상옥(종로경찰서)·김지섭(일본 궁성)·나석주(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을, 한인애국단에서는 김구와 이봉창·윤봉길 등을 주로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5) '1940년대 항일 연합 전선'에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로 나누어서 서술하였다. 우선 사회주의 계열은 김원봉의 민족혁명당(1935)을 중심으로 조선민족전선연맹(1937)–조선의용대(1938) 등으로, 민족주의 계열은 김구의 한국국민당(1935)을 시작으로 한국 광복운동단체연합회(1937)–한국광복군(1940) 창설을 다루었다.

전술하였듯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제3단원인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에 해당된다. 학계에 독립운동사

연구자가 부족한 현 실정을 반영하듯,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서술이 소략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물론 예전의 교과서와는 다르게 전근대와 근현대를 통합한 하나의 한국사 체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하다. 그리고 몇몇 부분에서 오류가 발견되고 있었다. 이는 독립운동사 전공자의 집필진 참여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아래는 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의 전체 저자들 가운데 제3단원을 저술한 집필진만을 추린 표이다.

〈표 2〉 15년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부분 집필진

교과서명	「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집필진
① 금성	정○○ : 중학교 교사 손○○ : 중학교 교사
② 동아	조 건 : 한국근대사 전공 강○○ : 중학교 교사 김○○ : 고등학교 교사 남○○ : 고등학교 교사
③ 리베르스쿨	나○○ : 고등학교 교사, 교육학 전공 박○○ : 대표이사, 영어학 전공
④ 미래엔	권○○ : 중학교 교사 박○○ : 고등학교 교사 조○○ : 고등학교 교사
⑤ 비상	김○○ : 고등학교 교사 조○○ : 고등학교 교사
⑥ 씨마스	경○○ : 고등학교 교사 신주백 : 한국근대사 전공 오○○ : 고등학교 교사
⑦ 지학	김○○ : 고등학교 교사 김○○ : 고등학교 교사
⑧ 천재교육	조○○ : 고등학교 교사 최병택 : 한국 근대사 전공 홍종욱 : 한국 근대사 전공
⑨ 해냄에듀	김○○ : 고등학교 교사 박○○ : 고등학교 교사

위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② 『동아』, ⑥ 『씨마스』, ⑧ 『천재교육』만이 한국 근대사 전공 연구자들이다. 여기서 독립운동사 연구자만을 다시 추려본다면, ⑥ 『씨마스』의 신주백만이 해당된다고 하겠다. 물론 연구위원과 검정위원으로 구성된 검정심의회에서 재차 검증을 받았지만, 일차적으로 교과서 집필진 가운데 독립운동사 연구자가 소수인 점은, 독립운동사 연구와 대중화에 관심을 갖는 중앙정부와 지역사회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대학 진학 이전 제도권 교육 내에서의 독립운동사 교육 강화는 관련 연구기관과 대학의 독립운동사 연구와 교육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¹⁵⁾ 지금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Ⅲ.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국외 독립군 설치와 군사 활동

1. 육군: 남만주 지역 광복군총영, 광복군사령부, 참의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는 1919년 삼일운동의 결과물로서 중국 상하이 지역에서 수립되었다. 상하이는 각국의 공공조계와 영사관이 설치될만큼 변화한 국제도시였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외교독립운동을 펼치고자 하는 한인 독립운동가들에게 상하이는 최적의 장소로 여겨졌다. 이처럼 초창기 임정의 활동은 외교독립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임정의 기본 독립운동 방침이 외교중심론인 것은 맞지만, 임정의 활동 전체가 외교독립운동에만 치중한 것은 아니었다.¹⁶⁾ 이와 같은 서

15) 독립기념관에서 주관하는 전국의 유, 초·중등 교원 대상 독립운동사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이나 충청권 고등학교 역사동아리의 독립운동사 교육은 참고할만하다. 자세한 내용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i815.or.kr를 참조하면 된다.

16) 한철호, 앞의 논문, 65쪽.

술 경향은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서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임정의 활동 가운데 군사활동 기술은 소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 중 ⑨ 해남에두 출판사의 경우 임정의 군사활동에 관한 서술 자체가 없었다. 다음의 <표 3>를 살펴보자.

<표 3> 15년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임정 군사활동 서술

교과서명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군사 활동에 관한 서술
① 금성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주로 외교 활동에 주력하여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파리위원회,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구미위원회 등을 두었다...(중략)...한편 만주 지역 독립군 세력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산하에 두기도 하였다. ¹⁷⁾
② 동아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외교 활동과 군사 활동을 벌이다> · 초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외교 활동에 주력하였다...(중략)...군사 활동으로는 국무원 산하에 군무부를 설치하여 군사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1920년에는 군무부 직할 광복군 사령부 와 광복군 총영 등을 설치하여 무장 투쟁을 하였으며, 이후 육군 주만 참의부 를 편성하여 군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미국에는 한인 비행사 양성소 를 설치하였다. ¹⁸⁾
③ 리베르스쿨	<다양한 독립 활동을 전개하다> · 임시 정부는 군사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국무원 산하에 군무부 를 설치하고 임시 육군 무관 학교 를 운영하여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였다. 1920년에는 군무부 직할의 광복군 사령부 를 창설하였고, 1923년에는 임시 정부 직할의 참의부 도 설치하였다. ¹⁹⁾
④ 미래엔	<무장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다> ·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는 만주 지역의 무장 투쟁 세력도 다수 참여하였다. 임시 정부는 외교 활동에 비중을 두었지만, 독립 전쟁 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남만주에 군무부의 직할 부대인 광복군 사령부 , 광복군 총영 등을 두고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²⁰⁾
⑤ 비상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 초기의 임시 정부는 국제 사회로부터 임시 정부를 승인받고 독립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외교 활동에 주력하였다...(중

	<p>략)...한편 임시 정부는 군사 활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정부 조직에 <u>군무부를 설치하여 군사 업무를 맡겼으며,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 등 만주 지역의 독립군 단체를 군무부 산하에 편제하였다.</u>²¹⁾</p>
<p>⑥ 씨마스</p>	<p><대한민국 임시 정부, 외교를 중심으로 활동하다> · 임시 정부는 외교 활동에 집중하여 기금식으로 하여금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중략)...이 밖에도 임시 정부는 독립 공채를 발행하거나 의연금을 거두고, <u>만주의 서로 군정서와 북로 군정서 등과 연결하였다.</u>²²⁾</p>
<p>⑦ 지학</p>	<p><외교 활동과 무장 활동을 전개하다> · <u>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외교 활동에 주력하는 동시에 독립 전쟁도 준비하였다. 만주의 무장 투쟁 세력이 임시 정부에 합류하면서 1920년 남만주에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등을 두고 무장 투쟁을 벌였다. 또한, 군무부를 설치하고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 등의 독립군을 산하에 두었다.</u>²³⁾</p>
<p>⑧ 천재교육</p>	<p><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활동> · 임시 정부는 외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중략)...한편, <u>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남만주의 일부 무장 투쟁 조직을 군무부 직할의 육군 주만 참의부로 편성하여 적극적인 항일 활동을 전개하였다.</u>²⁴⁾</p>
<p>⑨ 해남에듀</p>	<p><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어떤 일을 하였을까?> ·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설립 초기 외교 활동에 주력하였다. 프랑스와 미국에는 파리 위원부와 구미 위원부를 두어 국제 연맹과 워싱턴 회의에 독립을 청원하는 등 외교 활동을 계속하였다.²⁵⁾</p>

17) 『금성출판사』, 181쪽.

18) 『동아출판』, 161쪽.

19) 『리베르스쿨』, 171쪽.

20) 『미래엔』, 175쪽.

21) 『비상』, 178쪽.

22) 『씨마스』, 182쪽.

23) 『지학사』, 179쪽.

24) 『천재교육』, 185쪽.

25) 『해남에듀』, 17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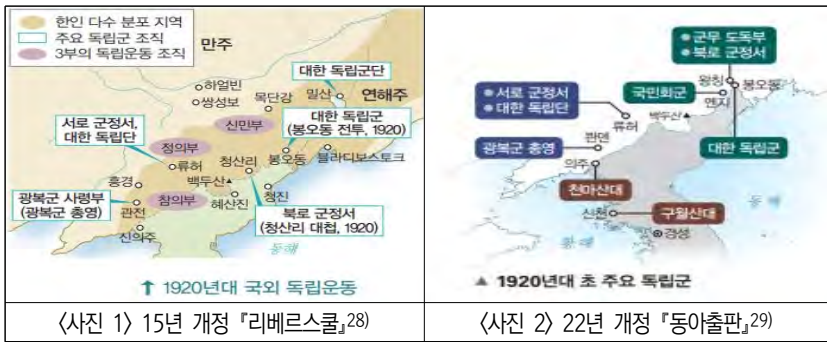
① 『금성출판사』는 “만주 지역의 독립군이 임정 산하에 편입되었다”라는 식으로 한 줄로 짧게 서술하였다. 반면에 『비상』(⑤)과 『씨마스』(⑥)는 구체적으로 ‘북로군정서’와 ‘서로군정서’를 언급하였지만, 전자는 “임정 군무부 산하”에 편제, 후자는 “임정과 만주의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가 연결”되었다고만 서술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2009년 개정 『비상』은 ‘서로 군정서’와 ‘북로 군정서’만을 명시했을 뿐, 임정의 어느 조직에 편제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예컨대, 2009년에는 “임시 정부 산하”, 2015년에는 “임정 군무부 산하”라고 소개하였다. 이는 편제 대상에 따라 다르게 기술해야 함을 나타낸다. 엄연히 임정 산하의 군무부에 편제된 것과 단순히 연결되었다는 것은 표현상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실질적으로 임정 군무부 산하로 편제된 남만주 독립군 단체는 광복군총영·광복군사령부·육군주만참의부(이하 참의부) 등이다.

서로 군정서와 북로 군정서는 임정 산하이지만 임정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즉,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는 임정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었을 뿐임으로 “군무부 산하”보다는 “임시 정부 산하”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실제로 북로군정서와 서로군정서 역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정을 봉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이들 두 단체는 군사정부로서 군정부(軍政府)를 표방하였으나, 한 나라에 두 개의 정부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임정에 정부의 명칭을 양보하고 자신들은 일개 군사단체라는 뜻으로 ‘군정서(軍政署)’로 명명하였던 것이다.²⁶⁾ 따라서 씨마스 출판사(⑥)의 “임정과 만주의 서로군정서,

26) 한족회(서로군정서)와 대한군정서(북로군정서)는 임정을 지지하는 총론을 내세워 조직을 ‘뿔’로 명칭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나 한인에 대한 영향력에서는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임정과 다른 입장을 견지하였다(신주백, 2021, 「1920년의 임시정부 독립전쟁론과 북간도 지역 독립군」, 『한국민족운

북로군정서가 연결되었다” 라는 표현은 적절해 보인다.

임정과 만주 독립군의 관계에 관한 서술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비상』 교과서였다. 2009년에는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뿐만 아니라 1920년 임정의 직할 부대로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영’ ‘육군 주만 참의부’ 등을 함께 설명하였다.²⁷⁾ 2015년 개정에서는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만을 언급하였다가, 2022년 개정에서 다시 ‘서로 군정서’와 ‘북로 군정서’, ‘광복군 총영’과 ‘광복군 사령부’, ‘육군 주만 참의부’를 서술하였다. 더불어 만주 독립군의 근거지를 ‘서간도’ → ‘남만주’로, 편제 주체를 “임정 산하” → “군무부 산하”로 표현하는 등 서술의 변화를 보였다.



동사연구』 제106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38~39쪽).

27) 『비상교육』, 291쪽.

28) 2015년 개정 『리베르스쿨』, 176쪽.

29) 2022년 개정 『동아출판』, 30쪽. 『동아출판』는 타 교과서와 달리 유일하게 15년 개정이어서 22년 개정까지 ‘천마산대’와 ‘보합단’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들 단체는 국내에 설치된 비밀결사단체로서, 남만주의 광복군총영과 연계하여 무장투쟁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만주 독립군의 국내진입작전 시 내용 공작의 성격이 강하다. 특히 천마산대는 이후에 광복군총사령부의 6개영(營) 가운데 제4영으로 편입되었다(박걸순, 1989, 「1920年代初 國內武裝鬪爭團體의 活動과 推移」,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96쪽; 김영범, 2009, 『의열투쟁 I -1920년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75~81쪽).

한편 ‘광복군 총영’과 ‘광복군 사령부’에 관한 서술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이는 두 단체의 실체에 관한 현 학계의 논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광복군 사령부’와 ‘광복군 총영’이 동일 단체인지 혹은 별개의 단체인지 학계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³⁰⁾ 2009년 개정 『비상』에 따르면, “1920년에는 직할 부대로 서간도에 광복군 사령부와 이를 개편한 광복군 총영을 두고 무장 투쟁을 지원하였다³¹⁾”라고 서술하였다. 『리베르스쿨』은 “1920년 겨울 일본의 대규모 공격으로 그 기능이 마비되어 광복군 사령부를 광복군 총영으로 개칭³²⁾”한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광복군 총영은 광복군 사령부를 “개편” 혹은 “개칭”하여 조직된 것으로 기술하였다. 하지만 광복군 총영(1920.7.)은 광복군 사령부(1920.8.)보다 한 달 앞서 창립되었고, 그 이후에 두 단체는 병립(竝立)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고가 반영되었듯, 2015년 개정 『비상』은 남만주 직할 군단으로 광복군 총영과 광복군 사령부의 병립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리베르스쿨』은 “개칭”이라는 표현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군무부 직할의 광복군 사령부”, “임시 정부 직할의 참의부”라고 표현하여 직할 주체에 혼선을 보였다. 또한 참의부의 설립시기에 대해서도 출판사마다 달랐다. 7차 교육과정 『두산』 1923년, 2009년 개정 『리베르스쿨』, 『천재교육』은 1923년을, 2015년 개정 『지학사』 1923년, 『천재교육』 1924년, 2022년 개정 『비상』은 1923년으로 기술하였다. 1924년설은 2015년 개정의 『천재교육』이 유일하였다. 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에 비춰볼 때, 1924년 6월이 유

30) 윤대원, 2006, 「서간도 대한광복군사령부와 대한광복군총영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연구』 제133호, 한국사연구회; 박성순, 2020, 「대한독립단의 위상과 대한광복군사령부의 성립」, 『승실사학』 제45집, 승실사학회.

31) 『비상교육』, 291쪽.

32) 2009년 개정 『리베르스쿨』, 287쪽.

력해 보인다.³³⁾

종합하자면, 임정은 1920년 독립전쟁 선포에 따라, 만주에 기 설립된 광복군총영(1920.7.)을 군무부 산하로 편입시켜 활용하거나 그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남만주 지역에 광복군사령부(1920.8.)와 참의부(1924.6.)의 창설에 관여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와 별개로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 등 만주 독립군 단체를 간접적으로 통제하였던 것이다.

2. 공군: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설치와 공군 건설 계획 추진

15년 개정 9종 교과서 가운데 일부 교과서(②, ⑦)에서는 '한인 비행사 양성소'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한인 비행사 양성소'의 정식 명칭은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스[Willows] '한인 비행가 양성소(韓人飛行家養成所)'이다. '한인 비행가 양성소'는 1920년 2월 20일에 임정 군무총장 노백린(盧伯麟)과 캘리포니아주 콜루사[Colusa] 및 글렌 카운티 일대에서 벵농사로 거부(巨富)가 된 김종림(金宗林)이 한인 비행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인비행 학교가 발전한 것이다. 같은 해 6월부터 연습용 비행기 2대를 구입하고, 외국인 교관으로 프랭크 브라이언트[Frank K. Bryant] 등을 채용하였다. 또한 인근의 레드우드 비행학교[Redwood Aviation School]를 졸업한 이용선(李用善)·오림하(吳林河)·이초(李超)·노정민(魯晶珉)·우병옥(禹炳玉) 등이 비행사로 임명되었다. 1920년 7월 5일 총재 김종림을 필두로 41명의 사원이 구성됨으로써 마침내 '한인 비행가 양성소'로 명칭을 변

33) 윤대원은 참의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받은 1924년 6월 24일을 창립 시기로 보았다(윤대원, 2013, 「참의부의 '法名' 개정과 상해 임시정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4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경하여 개교하였다.³⁴⁾

이처럼 임정은 외교 활동뿐만 아니라 군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항공을 활용한 항일투쟁도 추진해나갔다. 이는 마치 임정이 외교 활동만을 전개하였다는 오해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³⁵⁾ 즉, 임정의 ‘독립전쟁론’은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 등이 참여한 전방위적인 항일무장투쟁이었다.

하지만 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의 『한국근·현대사』 서술에 비해 임정의 군사 활동에 관한 기술이 빈약하다. 다음은 7차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수립 당초부터 군사 활동과 외교 활동을 주요 활동 목표로 정하였다. 그래서 정부 조직에 군무부를 설치하여 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그 아래 참모부를 두어 군사 지휘 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각종 군사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군사 활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중략)…그리하여 한국의 젊은이들을 중국 정규 군사 학교에 입학시켜 군사 학습을 받게 하였고, 미국에도 비행사 양성을 위하여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설치하였다. 1920년에는 군무부 직할의 **광복군 사령부**가 결성되었다. 또 국내에서 일본 군경과 직접 전투를 담당할 **광복군 충열도**를 설치하여 치열한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1923년에는 남만주의 독립군을 통합하여 군무부 직할의 **육군 주만 참의부**를 편성하여 독립 전

34) 임종현, 2022, 「미국 윌로우스 한인비행기양성소 건물의 역사 및 건축적 고증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8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32쪽.

35) (주)금성출판사(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따르면, 임정이 외교활동에 집중한 것처럼 기술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임정의 군사활동에 관한 내용을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 임정이 “무엇보다도 힘을 쏟은 것은 외교 활동”이라고 하였다. 임정의 외교 성과가 미국 등 강대국의 외면으로 좌절되자, 임정에 비판적이었던 신채호 등 중국 관내 세력과 만주, 연해주 등지의 무장 세력들은 독립운동전선의 통일과 독립운동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국민 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마치 임정이 외교활동에 치중한 나머지, 중국에는 무장투쟁론자 등 비판세력에게 임정 해체론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서술하였다(179쪽).

쟁을 전개하였다(강조, 밑줄 - 인용자).³⁶⁾

인용문을 살펴보았듯이,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보다 풍부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7차 교육과정 때에는 한국사를 전근대와 근현대 시기로 구분하여 『국사』와 『한국근현대사』로 각각 출판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현행처럼 전근대와 근현대를 통합하여 『한국사』라는 하나의 교과서로 발간되면 시기별 배분 문제로 그만큼 서술 내용이 소략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2022년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부터는 다시 ‘한국사1’과 ‘한국사2’로 구분하여, 각각 전근대와 근현대 영역을 기술하였다.

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전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비해 내용이 빈약하지만, 임정의 외교독립운동뿐만 아니라 공군 창설을 비롯한 군사 활동에 관해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필자가 파악한 2009년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일로우스 한인 비행사 양성소’ 등 임정의 공군 창설 계획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³⁷⁾ 그리고 2022년 개정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2』에서는 “항일 공군 양성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설립”하였다고 소개하였다. 더불어 「노백린 장군과 한인 비행학교 학생」 사진을 첨부하였다.³⁸⁾

36) 김광남 외 4명, 2003, 『한국근·현대사』, (주)두산, 175쪽.

37) 2009년 개정 왕현중 외 6명, 2014,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출판; 도면희 외 7명, 2014,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최준채 외 4명, 2014, 『고등학교 한국사』, (주)베르수쿨; 주진오 외 8명, 2014, 『고등학교 한국사』, 비상교육.

38)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인 비행학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로우스에 세워지게 되고, 청년 혈성단의 단원이자 레드우드 비행학교에서 비행술을 배운 이초·이용선·한창호 등은 일로우스 비행학교에서 교관으로 활동하였다(강병수 외 4명, 2025, 『고등학교 한국사2』, 한국학력평가원, 37쪽).

<p>大韓帝國 飛行家六人 飛行學校 桑港 飛行學校 飛行家 李用善 吳林河 盧伯麟 李用根 李超 軍務總長</p>	<p>↑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한인 비행사 양성소 교관들(미국 캘리포니아) 임시 정부는 미국의 비행 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공군 사관 학교인 한인 비행사 양성소를 운영하며 무장 투쟁을 준비하였다.</p>
<p>〈사진 3〉 『독립신문』, 1920년 4월 27일</p>	<p>〈사진 4〉 15년 개정 『지학사』</p>

전술하였듯이 15년 개정 일부 교과서에서는 한인 비행가 양성소 등 임정의 공군 설계 계획과 추진 활동을 소개해줌으로써 자칫 육군 중심의 군사 활동으로 흐를 수 있는 논지 전개를 개선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9종 교과서 가운데 ② 『동아』 ⑦ 『지학』 등 두 곳이 서술하였다. 그러면서 두 교과서 모두 군무총장 노백린과 한인 비행가 양성소 교관들을 소개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차이점이라면 『동아』는 노백린을 중심으로 좌우로 3명씩 총 7인³⁹⁾이 전부 촬영된 사진을 첨부한 반면에〈사진3 참조〉, 지학사의

39)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과 6명의 한인 비행가 양성소 교관들 사진이다. 좌측부터 장병훈·오림하·이용선·노백린·이초·이용근·한장호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독립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 韓國學生中 美國 레드우트 뿌라이에트航空學校에 入學하여 飛行術을 研究하는 者 三名이 있는데 去月 中旬이 畢業期라고(「飛行家三名」, 『독립신문』, 1920년 2월 17일)”라고 하였다. 그리고 노백린을 비롯한 6명의 비행가들의 사진을 첨부하며 “右로부터 韓章鎬 李用根 李超 軍務總長 盧伯麟 李用善 吳林河 張炳勳. 飛行服을 着하고 盧總長의 左右에 羅立한 六靑年은 加州레드우드飛行學校를 去二月에 畢하고 目下 월로우쓰에 設立된 韓人飛行學校에서 研究教授에 從事하는 이들이라(本報 六十七號 美洲通信 參照) 背景은 同飛行場及機體의 一部라[「大韓이 처음으로 가지는 飛行家六人(民國二年 二月五日 桑港飛行機學校에서)」, 『독립신문』,

경우, 양쪽이 한 명씩 절삭된 노백린 등 5명만이 등장한 사진을 첨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사진4 참조>.40)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독립·호국·민주를 주제로 나라 사랑 정신과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보훈 관련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이 교과서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활동」 부분에서는 임정의 활동을 크게 ① 행정 활동 ② 재정 활동 ③ 군사 활동 ④ 경찰 활동 ⑤ 외교 활동 ⑥ 교육·문화 활동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③ 군사 활동에서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1920년 1월 대한적십자회의 주관으로 간호원 양성소를 부설 기관으로 개설하여 남녀 간호병을 양성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는 독립전쟁으로 인하여 부상당한 독립군과 동포들에 대한 진료와 치료 목적으로 개설되었음을 보여준다.41)



〈사진 5〉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교사 건물 사진



〈사진 6〉

윌로우스 한인 비행가 양성소 한인 학생들42)

만약 사진을 첨부할거라면 전체 인원이 등장한 사진을 게재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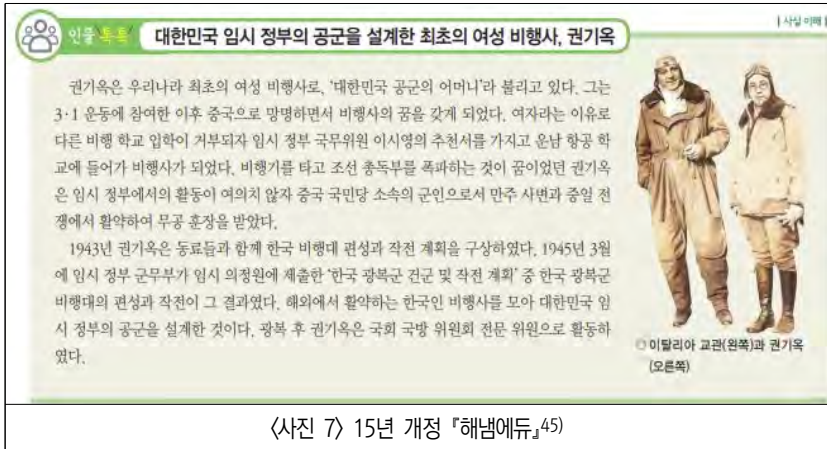
1920년 4월 27일』라고 소개하였다.

40) 2015년 개정 『지학사』, 179쪽.

41) 황선익 외 5명, 2022, 『고등학교 나라사랑과 보훈』, 경기도교육청, 77쪽.

42) 『고등학교 나라사랑과 보훈』, 77쪽; 국사편찬위원회, 201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44 : 사진자료, 99쪽.

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불어 최근에 발굴된 「한인 비행가 양성소 건물 사진」(〈사진 5〉⁴³⁾참조) 등 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⁴⁴⁾



한편 1940년대 임정의 군사 활동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모든 교과서에서는 충칭[重慶]에 정착한 임정이 1940년 9월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술하였으나, ‘공

43) 독립기념관 소장, 자료번호 : 1-019897-131. 윌로우스 한인비행가양성소의 교사 건물을 촬영한 사진이다. 해당 사진은 애국지사 임성실(林成實, 1882~1947)의 사진첩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임성실은 1919년 미국 다뉴바 신한부인회 대표로 대한여자애국단 조직에 참여했고, 이후 대한여자애국단 다뉴바 지부 단장 등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자금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해당 사진 속 건물은 1918년 폐교된 '퀸트학교(Quint School)'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한 윌로우스 한인비행가양성소 교사 건물이다. 사진 상단에 쓰여진 'Training Camp, Willows, Cal' 를 통하여 한인비행가양성소 학교 건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교사 정면에 성조기가 게양되어 있고, 마구간과 창고, 그리고 교사 건물 뒤로는 학생들이 기숙하던 막사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 해당 사진은 1920년 개교 당시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진을 촬영한 정확한 일자까지는 추정하기 어렵다.

44) 김도형, 2021, 「윌로우스 한인비행가양성소 사진 소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5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45) 15년 개정 『해냄에듀』, 220쪽.

군 건설 추진 계획'에 대한 언급은 『해남에듀』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1943년 3월 30일 임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잠행관제」를 제정하여 군무부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할 때, 육·해군과 더불어 공군을 명시하였다. 독립전쟁 수행에 있어서 공군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회에서는 참모처 처장인 최용덕(崔用德)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무부 직할의 '공군설계위원회'를 두고 장차 공군 건설 계획을 추진해 나갔다.⁴⁶⁾ 이처럼 1940년 9월 임정의 광복군 창설과 더불어 1943년 공군설계위원회의 설치는 1920년 독립전쟁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군설계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공군 창설과도 맥을 닿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940년대 임정의 공군 건설 추진 계획에 대해서 언급한 곳은 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15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해남에듀』가 유일하였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는 한국광복군이 “미국과 연합하여 비행 편대를 편성”하려고 시도하였음을 밝혔다.⁴⁷⁾ 『해남에듀』는 8명⁴⁸⁾의 공군설계위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최초의 여성비행사인 권기옥(權基玉)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독립운동사 서술이 남성 중심으로 치우친 점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안배라고 보인다.⁴⁹⁾

46) 홍선표, 2015,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군 건설 계획과 추진」, 『軍史』 제97호, 군사편찬연구소, 197~198쪽; 김기동, 2018, 「독립전쟁에서의 항공력 활용 노력과 '공군' 개념의 형성」, 『군사사연구총서』 제7집, 군사편찬연구소, 165~167쪽.

47) 7차 교육과정, 2003,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15쪽. 한국광복군은 1944년 8월 「한국광복군 9개준승행동준구」 취소를 계기로, 말경부터 연합군인 미군과의 합작을 통해 공군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홍선표, 위의 논문, 204쪽).

48) 최용덕·윤기섭(尹琦燮)·김철남(金鐵男)·이영무(李英茂)·김진일(金震一)·권기옥·이연희(李然 皓 또는 이상정(李相定))·권일중(權一重) 등이다.

49) 2022년 개정 교과서는 여성 한국광복군 대원으로 권기옥·오광심(『동아』), 김정숙·민영주·신순호·오광심·지복영·조순옥(『비상』), 오광심(『지학사』), 김정숙·민영주·신순호·오광심·지복영·조순옥(『해남에듀』) 등을 소개하였다. 한편

IV. ‘독립전쟁’과 ‘항일무장투쟁’ 용어에 대한 시론적 검토

1. 임정과 ‘전방위적인 독립전쟁론’

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는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혼선을 빚는다. 이는 ‘독립전쟁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생긴 혼란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1920년 초 임정의 ‘독립전쟁의 해’ 선포 등 독립전쟁론을 전략론 차원에서 보지 않고 단순히 투쟁 방법이나 전술 단위로서만 논의되었다. 이러한 해석이 현행 교과서에서도 ‘독립전쟁론’과 ‘항일 무장 투쟁’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교과서에 따라 ‘항일 무장 독립 투쟁’, ‘무장 독립 투쟁’, ‘무장 투쟁’, ‘무장 독립 전쟁’ 등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서술은 동일하다. 독립전쟁론이란 항일무장투쟁을 핵심 투쟁 방법으로 삼기는 하지만, 무장 투쟁만을 말하거나 그 일변도의 투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⁵⁰⁾

임정은 1920년 새해 들어서 제국주의 일본과의 항일독립전쟁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인적, 물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일제와의 전면전은 무리였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안창호는 독립전쟁 준비론을 주창하였다. 이는 막강한 전력을 갖춘 일제와 전면전

15년 개정 『금성출판사』는 한 지면을 할애하여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훈·포상 등의 예수가 열약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6년 3·1절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서 훈·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1만 4,329명, 이 중 여성은 272명(1.9%)에 지나지 않”으며, “보훈처에서 발굴한 전체 여성 독립운동가(2,747명)”에서도 “포상은 10%에 불과하다”라고 소개하였다(15년 개정 『금성출판사』, 187쪽).

50) 신주백, 앞의 논문, 11쪽.

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력양성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⁵¹⁾ 이와 같은 요지의 서술은 15년 개정 현행 한국사 교과서보다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상략)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중국에서 직접 군사 활동을 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특히 중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컸다. 이에 임시 정부는 당장의 대일 항전보다는 후일에 일본이 중국 또는 미국과 전쟁을 전개하여 국제 정세가 한국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시점이 바로 독립 전쟁 개시의 적기라 판단하였다. …(중략)… 대한 민국 임시 정부는 군사력 배양에 우선을 두어 독립 전쟁 준비에 착수하였다.⁵²⁾

이처럼 전략으로서 독립전쟁론이란, 우리 스스로 독립군을 양성하는 동시에 정치·경제적으로 실력을 키워서, 미·일, 러·일, 중·일간의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 정세 변동 등 독립전쟁의 여건이 성숙되어갈 때,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바탕으로 일제와 독립전쟁을 벌여서 독립을 쟁취하는 것을 말한다.⁵³⁾

1920년 임정의 독립전쟁론은 이후의 만주·연해주 등 국외 지역 항일무장투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군사전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금성』, 『미래엔』, 『비상』, 『지학』, 『해냄에듀』 등이 ‘전략론’이 아닌 ‘방법론’으로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전쟁론은 임정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었다. 다만 『지학사』만이 “대한

51) ‘방법론’ 관점에서 ‘실력준비론’과 ‘외교론’은 투쟁방략은 다르지만, ‘독립전쟁’이라는 ‘전략론적’ 관점에 비추어볼 때, 양자는 무장력을 현실화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신효승, 2018, 「20세기 초 국제 정세 변동과 한인 무장 독립운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쪽).

52) 김광남 외 4명, 앞의 책, 175쪽.

53) 신주백, 앞의 논문, 12쪽.

민국 임시 정부는 외교 활동에 주력하는 동시에 독립 전쟁도 준비하였다”⁵⁴⁾ 라고 설명하여, 다섯 곳 가운데 유일하게 임정과 독립전쟁론을 연관지어서 설명하였다.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서술 경향은 전근대와 근현대를 하나의 한국사로 통합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술 내용이 소략할 뿐만 아니라 임정의 독립전쟁론을 기술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서술이 임정은 마치 무장 투쟁보다는 외교독립운동 노선에 치중한 것으로 비춰지게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⁵⁵⁾

2) ‘국내진공작전’과 ‘의열투쟁’ 용어 검토

15년 개정 교과서의 이와 같은 혼선은 국내진공작전에 관한 서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즉, 항일무장투쟁의 한 방법이자 전술로서 국내진공작전을 설명하지 않고, 항일무장투쟁과 국내진공작전을 동일시하였다. 이들 교과서들은 항일무장투쟁을 독립전쟁이면서 국내진공작전으로 기술한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독립전쟁론’을 하나의 ‘전략론’으로서 본 것이 아니라 ‘방법론’으로 파악하여, ‘독립전쟁’=‘항일무장투쟁’=‘국내진공작전’으로 도식하였다. 다음의 <표 4>은 15년 개정 교과서의 ‘국내진공작전’에 관한 서술을 정리한 것이다.

54) 『지학사』, 179쪽.

55) 15년 개정 비상·지학사·천재교육 등 3종의 『역사부도』 교과서에서도 임정의 군사 활동과 관련된 사진이나 지도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지학사』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주요 활동으로, “군무부 설치, 육군 주만 참의부를 편성하여 독립 전쟁”하였다고 요약하였다(『지학사』, 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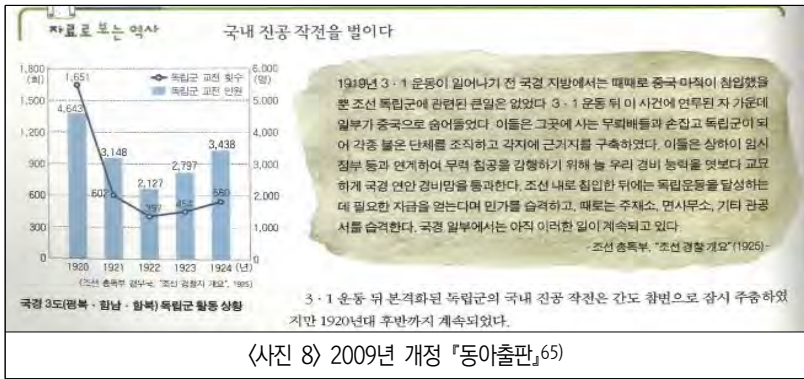
〈표 4〉 15년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1920년대 국내진공작전에 관한 서술

교과서명	1920년대 국내진공작전에 관한 서술
① 금성	<p><항일 무장 독립 투쟁의 전개></p> <p>· 3·1운동 이후 무장 독립 전쟁을 위해 만주 지역에는 수많은 독립군 부대가 편성되었다. 서간도의 <u>서로군정서</u>, 북간도의 <u>대한 독립군과 북로 군정서</u>가 대표적이다. 독립군 부대들은 1920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입하여 관공서를 습격하고, 일본 군경과 전투를 벌이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다.⁵⁶⁾</p>
② 동아	<p><국내에서 무장 독립 투쟁을 전개하다></p> <p>· 3·1운동 이후 국내에서 여러 독립군 부대가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평안북도 의주의 천마산에서는 <u>최시흥</u> 등이 <u>천마산대</u>를 조직하여 일제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고 친일파를 숙청하였다. 동암산에서는 <u>보합단</u>이 조직되어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군자금을 전달하였으며, 친일파를 처단하고 일제 관리와 경찰을 사살하기도 하였다. 한편 황해도 일대에서는 <u>구월산대</u>가 조직되어 은을 군수를 처형하고 밀정을 처단하였다.</p> <p><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다></p> <p>· 독립군은 국내에 진입하여 일제와 전투를 벌이고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였으며, 군자금 모금, 친일파 처단 등의 활동을 펼쳤다. <u>홍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은 함경남도까지 진출하여 일제에 피해를 입혔다.</u>⁵⁷⁾</p>
③ 리베르스쿨	<p><무장 투쟁의 전개></p> <p>· 국권 피탈을 전후하여 서간도와 북간도 일대에 한인 사회가 형성되었다. 한인 사회를 기반으로 3·1운동 이후 만주 지역에는 크고 작은 50여 개의 독립군 단체가 결성되었다. 서간도에서는 <u>신홍 무관학교 출신이 중심이 된 서로 군정서</u>가 활동하였다. 북간도에서는 <u>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u>가 조직되었다. 독립군은 수시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와 일제 군경과 전투를 벌였다. 1920년 6월, 북간도 지역의 독립군은 두만강을 건너 일본 헌병 수비대를 기습하여 큰 피해를 주었다.⁵⁸⁾</p>
④ 미래엔	<p><무장 독립 전쟁></p> <p>· 3·1운동 이후 일제와 전쟁을 벌여 독립을 쟁취하자는 분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만주, 연해주 일대의 독립운동 기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독립군이 조직되었다. 독립군은 수시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와 일본 군경을 습격하여 전과를 올렸다. 독립군의 <u>국내 진공</u>에 시달린 일본군은 1개 대대 병력으로 두만강을 건너 독립군을 공격하였다.⁵⁹⁾</p>
⑤ 비상	<p><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p>

	<p>· 1910년대 간도와 연해주의 한인들은 자치 단체를 만들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하였다. 3·1운동 이후 무장 독립 전쟁의 중요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각 지역의 독립군들은 국내 진격을 목적으로 한 독립 전쟁을 시작하였다.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은 국경 지역을 수십 차례 공격하여 압록강 연안의 해산진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독립군이 국내 진공 작전을 벌이자 일제는 병력을 동원하여 두만강을 건너 독립군을 공격하였다.⁶⁰⁾</p>
<p>⑥ 씨마스</p>	<p><봉오동에서 일본군 추격 부대를 섬멸하다> · 3·1운동 이후 만주 지역에는 북로 군정서, 대한 독립군, 서로 군정서, 군무 도독부 등 50여 개 무장 독립 단체들이 등장하였다. 무장 독립 단체들은 1920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일부가 연합하여 대한 북로 독군부를 결성하였다. 일제는 무장 독립 단체의 국내 진입을 막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 추격대를 파견하였다.⁶¹⁾</p>
<p>⑦ 지학</p>	<p><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다> · 3·1운동 이후 국내에서는 천마산대, 보합단, 구월산대 등이 조직되어 일제 군경과 전투를 벌였다. 만주 지역에서는 1910년대 건설된 독립운동 기지를 기반으로 무장 투쟁을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독립군 부대들이 조직되었다. 이들은 국경 지역을 공격하는 등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와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일제는 대규모 정규군을 동원하여 독립군 근거지를 공격하였다.⁶²⁾</p>
<p>⑧ 천재교육</p>	<p><무장 투쟁의 승리,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 국내에서 3·1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만주의 한인 거주 지역에서도 만세 시위가 활발하게 벌어졌다. 이러한 열기는 1910년대 이래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맞물리면서 무장 투쟁의 전개로 이어졌다. 1919년에서 이듬해에 걸쳐 만주 일대에서는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 대한 독립군, 광복군 사령부 등 약 50개의 독립군 부대가 조직되었다. 독립군 부대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일본 군대와 경찰, 식민 통치 기관을 습격하는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다. 이에 일본군은 1920년 6월 두만강을 건너 독립군을 공격하였다.⁶³⁾</p>
<p>⑨ 해냄예두</p>	<p><무장 투쟁으로 일제에 맞서다> · 1910년대 만주와 연해주의 한인들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여 독립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3·1운동을 계기로 만주의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비폭력 노선에 한계를 느끼고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 대한 독립군 등을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무장 독립 투쟁에 나섰다.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독립군은 어떻게 싸웠을까?></p>

· 무장 독립군은 만주와 연해주 한인들의 지원을 받으며 힘을 길렀다. 이들은 수시로 국경을 넘어 일제의 통치 시설에 기습 타격을 가한 뒤 다시 국경을 넘어가곤 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1920년 6월 북간도의 독립군을 추격하기 위해 추격대대를 편성하여 독립군 근거지였던 봉오동으로 진격해 왔다.⁶⁴⁾

대부분의 15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만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 즉, ‘국내진공작전’이 1919년 삼일운동을 기점으로 고양된 민족의식에 따라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국내진공작전’이란, 만주 독립군이 압록강과 두만강 등 국경을 수시로 넘어서 일본 군경·친일·밀정들을 처단하고, 경찰서·주재소·관공서를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일제측 보고에

56) 『금성출판사』, 184쪽.
 57) 『동아출판』, 164쪽.
 58) 『리베르스쿨』, 174쪽.
 59) 『미래엔』, 178쪽.
 60) 『비상』, 181쪽.
 61) 『씨마스』, 195쪽.
 62) 『지학사』, 180쪽.
 63) 『천재교육』, 189쪽.
 64) 『해냄에듀』, 178쪽.
 65) 『동아출판』, 242쪽.

따르면, 1920년 이래로 5년간 독립군이 국내로 진공한 건수는 총 3,664건에, 참여 독립군 수는 16,153명에 이르렀다. 특히 독립군의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1920년에만 1,651건에 4,643명을 기록하였다.⁶⁶⁾

한편 ‘독립전쟁론’에 대한 학계의 최신 연구성과가 2009년 개정부터 15년 개정 교과서까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2009년 개정 한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다.

임시 정부는 일제의 탄압으로 연통제와 교통국이 무너져 국내에서 독립 자금을 모으기 어렵게 되고, 중점을 두었던 외교 활동도 강대국의 외면으로 좌절되어 1921년을 고비로 침체 상태에 빠졌다. 이 무렵 이동휘 계열의 **독립 전쟁론**, 이승만 계열의 외교론, 안창호의 실력 양성론 등 독립운동의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으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계열 간의 갈등도 나타났다(밑줄, 강조 - 필자).⁶⁷⁾

인용문에 따르면, 각각의 독립운동 노선으로 ‘독립전쟁론’, ‘외교론’, ‘실력양성론’ 등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15년 개정부터 ‘독립전쟁론’에서 ‘항일무장투쟁론’으로 표현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독립전쟁론’=‘항일무장투쟁’=‘국내진공작전’이라는 도식화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서술 경향은 ‘항일무장투쟁’과 ‘의열투쟁’을 구분함으로써 더욱 명확해졌다. ‘항일무장투쟁’은 ‘국외’에서 ‘정규군’과 유사한 형태의 ‘군대’를 양성해 일본군과 전쟁을 벌여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며, ‘의열투쟁’은 ‘개인’이나 의열단과 같은 ‘소규모 조직’이 일제의 주요 기관을 파괴하고 요인을 암살 및 처단하여 독립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⁶⁸⁾

신효승은 15년 개정 교과서의 이러한 노선 구분에 대해서 사

66) 이현주, 2009, 『1920년대 재중항일세력의 통일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7쪽.

67) 주진오 외 8명, 2014,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천재교육, 251쪽.

68) 신효승, 앞의 논문, 45쪽.

실상 의미가 없다고 비평하였다. 그에 따르면, 당시의 독립군 단체들은 ‘정규군’ 형태로 조직되었으나, 투쟁방략은 개인 혹은 소규모의 게릴라전인 ‘의열투쟁’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애매모호하다고 보았다.⁶⁹⁾ 하지만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오히려 항일무장투쟁으로서의 국내진공작전과 의열투쟁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는 다음의 ‘의열투쟁 <표 5>’과 관련된 기술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표 5〉 15년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의열투쟁에 관한 서술

교과서명	의열 투쟁에 관한 서술
① 금성	<일제를 놀라게 한 의열 투쟁> · 3·1운동 이후 만주 지역에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의열단이 조직되었다…(중략)…그러나 개인의 암살·파괴 중심의 의열 투쟁에 점차 한계를 느낀 의열단은 더욱 조직적인 항일 투쟁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은 중국 국민당이 설립한 황푸 군관 학교에 입학하여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받았다. 1930년대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 이후 의열단은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하기 위해 민족 혁명당 결성을 주도하였다. ⁷⁰⁾
② 동아	<의열단이 결성되다> · 1919년 11월에 만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중심이 되어 의열단을 결성하였다. …(중략)… 1920년대 후반에 들어 의열단은 의열 활동만으로는 독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의열단원들은 중국의 황푸 군관 학교에 입학하여 정규 군사 훈련을 받았고, 1930년대에는 독립운동 지도자 양성을 위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 또한, 중국 관내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한 민족 혁명당 설립을 주도하였다. ⁷¹⁾
③ 리베르스쿨	<의열 투쟁의 전개> · 3·1운동 이후 무력 투쟁이 광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군 부대는 물론이고 개인 폭력 투쟁을 전개하는 단체가 조직되었다. ⁷²⁾

69) 신호승, 앞의 논문, 45쪽.

70) 『금성출판사』, 188쪽.

71) 『동아출판』, 166쪽.

72) 『리베르스쿨』, 178쪽.

<p>④ 미래엔</p>	<p><의열 투쟁의 의미></p> <p>· 3·1운동 이후 비폭력 투쟁만으로는 독립을 쟁취하기 어렵고, 독립군을 길러 조직적인 무장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독립군의 군사 활동은 많은 병력과 비용이 들고, 활동의 근거지도 마련해야만 하였다. 이에 비해 개인 또는 소규모의 비밀 조직으로도 가능한 의열 투쟁은 소수의 인원과 적은 비용으로 암살, 파괴 활동을 수행하여 독립군의 군사 활동 못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⁷³⁾</p> <p><의열단, 조직적인 무장 투쟁으로 노선을 바꾸다></p> <p>· …(상략)… 의열단은 1920년대 후반부터 개인 폭력 투쟁에 한계를 느끼고 조직적인 무장 투쟁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단원들은 중국 군관학교에서 체계적인 군사 교육을 받았고, 1930년대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여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다. 그리고 중국 관내에서 활약하던 대부분의 항일 단체와 정당을 통합한 민족 혁명당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1935).⁷⁴⁾</p>
<p>⑤ 비상</p>	<p><의열 투쟁의 전개></p> <p>· 3·1운동 이후 일제 고위 관리를 처단하거나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동포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민중 혁명을 통해 독립을 달성하려는 의열 단체가 만들어졌다. …(중략)… 그러나 의열단은 1920년대 후반부터 개인 폭력 투쟁에 한계를 느끼고 조직적인 항일 무장 투쟁으로 노선을 바꾸었다.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은 중국의 황포 군관 학교에 입교하여 정규 군사 교육을 받는 한편, 1930년대에는 독립군 간부 양성을 위해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조선 혁명 군사 정치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중국 관내 대부분의 민족 운동 단체를 통합한 민족 혁명당 결성(1935)을 주도하였다.⁷⁵⁾</p>
<p>⑥ 씨마스</p>	<p><의열단, 의열 투쟁을 전개하다></p> <p>· 3·1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 통치 기관을 파괴하거나 일제의 고위 관리, 군 수뇌부, 친일파 등의 처단을 목표로 하는 의열 투쟁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대표적인 단체는 1919년 만주에서 김원봉이 주도하여 조직한 의열단이었다. …(중략)… 그러나 1920년대 후반 의열 투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무장 항일 투쟁으로 노선을 전환하였다. 단장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은 중국 국민 정부의 협조를 받아 중국군 장교를 양성하는 황포 군관 학교에 입교하여 군사 교육 및 간부 훈련을 받았다.⁷⁶⁾</p>

<p>⑦ 지학</p>	<p><의열 투쟁이 전개되다> · 3·1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서 암살, 파괴 등의 활동을 하는 <u>의열 투쟁</u>이 전개되었다. …(중략)… 1920년대 중반 <u>의열단은 개인 차원의 의거 활동으로는 독립을 쟁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독립군 결성과 무장 투쟁으로 활동 방향을 바꾸었다. 이에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원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 황푸 군관 학교에 입학하여 군사 교육 및 간부 훈련을 받았으며, 이후 이들은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1932).⁷⁷⁾</u></p>
<p>⑧ 천재교육</p>	<p><의열단, 의열 투쟁으로 민족의식을 깨우다> · 3·1운동 이후 암살, 파괴 등의 <u>의열 투쟁</u>을 통해 민족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이 조직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단체가 <u>의열단</u>이었다. …(중략)…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u>의열 투쟁의 한계를 느낀 의열단은 체계적인 혁명 훈련과 간부 조직에 착수하였다. 김원봉을 비롯한 핵심 단원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운영하던 황푸 군관 학교에 입학하여 체계적인 군사 교육과 간부 훈련을 받았다. 또한 김원봉은 1932년 중국의 지원 아래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세워 운영하였다.⁷⁸⁾</u></p>
<p>⑨ 해남에듀</p>	<p><의열 투쟁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 <u>의열 투쟁</u>은 개인적인 혹은 소규모 조직적인 차원에서 파괴와 암살 활동을 통해 일제의 통치를 무력화시키고 여론을 환기하고자 한 활동을 말한다. …(중략)… 1920년대 후반 들어 <u>의열단은 개인적 폭력 투쟁에 한계를 느껴 독립 전쟁을 위한 간부 조직에 착수하였다. 중국 황푸 군관 학교에 단원을 입학시켜 군사 교육을 받게 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에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세워 군사 훈련에 힘썼다.⁷⁹⁾</u></p>

73) 『미래엔』, 182쪽.

74) 『미래엔』, 183쪽.

75) 『비상』, 184쪽.

76) 『씨마스』, 198쪽.

77) 『지학사』, 183쪽.

78) 『천재교육』, 191쪽.

79) 『해남에듀』, 180쪽.

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 9종 모두 ‘의열투쟁’을 ‘무장투쟁’과는 별도로 서술하면서, 그 대표적인 단체로 의열단(1919)과 한인 애국단(1932)을 소개하였다.⁸⁰⁾ 그러면서 의열단이 1920년대 후반부터 노선의 변화를 피해 중국 국민당의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 교육과 간부 훈련을 받아 ‘항일무장투쟁’으로 변모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이는 현재까지의 학계 연구성과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서술이라고 본다. 일부 ‘1920년대 후반’이라는 서술이 애매모호하지만, 이를 통해서 의열단이 ‘의열투쟁’에서 ‘항일무장투쟁’으로 노선을 변경하였음을 잘 드러내었다. 2022년 개정의 『한국사2』 교과서도 동일하였다. 다만, 『비상』은 “의열 투쟁”이 아니라 “폭력 투쟁”으로 명명하였다.

실제로 의열단은 상해청년동맹과의 노선 공방에서 패배함으로써 그 직후인 1925년에 암살과괴운동 노선에 대한 자체 재검토와 다각도의 성찰을 거쳐 마침내 진로 조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의열단의 폭탄거사식 운동방법은 그 충격 효과에 비해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고, 희생에 비해서 성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1925년에 들어서 의열단이 극심한 재정 궁핍으로 퇴세 국면으로 전락하였다는 점과 이듬해 1월부터 핵심 간부들이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한 점도 한 몫하였다.⁸¹⁾

이와 관련해서 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미래엔』의 서술이 주목된다. ‘의열투쟁’은 많은 비용과 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항일무장투쟁’보다는 적은 비용과 소수 인원의 암살과괴운동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의열투쟁도 대내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녹록치 못하였다. 일제의

80) 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는 09년도 교과서에 비해서 의열투쟁에 관한 서술이 강화되었다. 의열투쟁이라는 큰 틀에서 ① 의열단 ② 개인적인 의열투쟁 ③ 한인 애국단을 기술하였다(한승훈·남기현, 앞의 논문, 363~365쪽).

81) 김영범, 1997,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133·135·137쪽.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 그리고 의열단 내 자금 궁핍 등으로 인한 쇠퇴 국면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의열단 스스로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거친 끝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으로 단원들이 군관학교에 입학하여 항일무장투쟁 노선으로 변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과 노선 변화가 의열단이 난징에 정착하였을 때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립하는 데까지 이어진다고 보았다. 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 중 ③ 『리베르스쿨』과 ④ 『씨마스』를 제외하고 모든 교과서들이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소개하였다. 다만 '조선 혁명 간부 학교'라고 기재한 것이 차이점이다. 이 학교는 의열단 지도부가 1932년 10월부터 1935년 9월까지 운영한 곳으로, 정식 명칭은 '中國國民政府 軍事委員會 幹部訓練班 第6隊'이다. 때에 따라서는 '의열단간부학교'·'조선혁명간부학교' 등으로 불리웠고, 일제 측에서는 '의열단 군관학교'라고도 칭하였다.⁸²⁾

필자는 15년 개정 교과서의 이러한 서술방식에 일부 동의하는 한편으로, 일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요컨대, 전략적 용어인 독립전쟁론은 '항일무장투쟁'으로 구체화되고, 이러한 '항일무장투쟁'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국내진공작전'과 '의열투쟁'이 구분지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이후에 의열투쟁 단체인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이 개인(소수)의 희생에 따른 의열투쟁 방식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군사 교육과 간부 훈련에 치중하는 것으로 이들의 노선과 전술 변화를 설명하기에도 설명하기에도 한층 자연스러울 것이다. 향후에 학계의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입장을 중심으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전방위적 독립전쟁론'을 서술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82) 강만길, 2018,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창작과비평사, 2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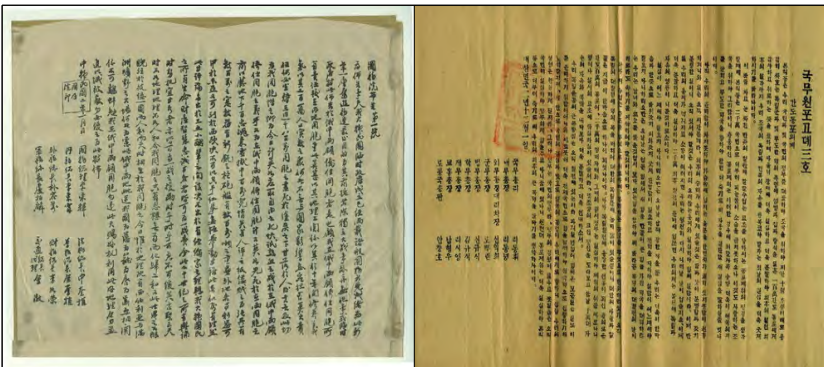
V. 맺음말

지금까지 2015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20년(2019년 김인정)에 발간한 『한국사 교과서』 9종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과 군사 활동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의 개념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더불어 7차 교육과정과 09년·22년 개정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으로, 각각의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7차 교육과정의 경우, 15년 개정 한국사 교과서보다 독립운동사 내용이 자세하고 풍부하였다. 이것은 『국사』와 『한국근현대사』로 과목이 구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에 2009년 개정 교과서는 기존의 『국사』와 『한국근현대사』 과목이 『한국사』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된 첫 사례였다. 마지막으로 2022년 개정 『한국사Ⅱ』 교과서는 15년 개정 교과서 직후에 발간된 것으로서 서술 경향과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용이하였다.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는 임정이 외교 활동에 치중하여 마치 군사 활동을 등한시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승만의 ‘외교독립론’, 이동휘의 ‘항일무장투쟁론(혹은 독립전쟁론)’, 안창호의 ‘실력양성론’ 등으로 도식화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중국에는 1923년 국민대표회의 개최에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서술은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서 많이 개선되었다.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비해 분량은 소략하지만, 대체적으로 임정의 군사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하지만 일부 서술 표현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예컨대, 임정의 만주 독립군을 활용한 군사 활동 부분에서 서로 군정서와 북로군정서를 임정 직속의 군무부 산하로 편입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들 두 단체가 간접적으로 임정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임정 직제로 편입된 것은 아니다. 임정의 군무부 직할로 편제된 만주의 독립군은 남만주 지역에 근거지를 둔 광복군총영과 광복군사령부 그리고 참의부에 해당된다.

또한 임정의 군사 활동 가운데 1920년 윌로우스 한인 비행기 양성소와 1943년 공군 건설 계획 추진에 관한 내용이 아예 언급조차 없거나 소략한 점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군에 관한 서술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의 건군(建軍)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육군 중심의 독립운동사 서술에 균형감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임정의 '독립전쟁론'이 육군을 비롯하여 공군 등 전한국민들이 참여한 '전방위적인 독립전쟁'의 열망이 발현된 것임을 드러내게 한다.⁸³⁾



〈사진 9〉 전국민은 독립전쟁에 참여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호소한 '국무원 포고문' 84)

83) 「국무원 포고 제1호」, 『大公報』(天津), 1920년 4월 10일(국사편찬위원회, 2010,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39 : 중국보도기사 I, 127~129쪽).

84) 국사편찬위원회, 2011,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44 : 사진자료, 56~57쪽.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서술에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독립전쟁의 구체화된 방법론이 항일무장투쟁이고, 항일무장투쟁에는 정식 훈련을 받은 정규화된 독립군의 군사 활동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국내진공작전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또한 항일무장투쟁과는 별개로 의열투쟁을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즉, 독립군의 군사 활동은 정식 군사 훈련을 받은 군대가 무기를 소지하여 국내로 진공하는 개념으로 상정된 반면에, 의열투쟁은 개인 혹은 소규모의 의열단체에서 수행한 방략으로 구분지은 것이다. 이는 항일무장투쟁(국내진공작전)과 의열투쟁을 나누는 기준이 군대의 개념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른 것이다.

필자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일견 동의는 하지만, 항일무장투쟁 자체의 개념을 재조정해야한다고 본다. 현행 교과서는 항일무장투쟁과 국내진공작전을 동일시하였지만, 필자는 이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전쟁이라는 대전략론 아래에 노선에 따라 항일무장투쟁·외교독립론·실력양성론 등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항일무장투쟁의 구체적인 투쟁 방략으로 ‘국내진공작전’과 ‘의열투쟁’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독립전쟁론은 항일무장투쟁뿐만 아니라 외교독립론과 실력양성론 등이 각각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상호·보완하여 전개된다. 그 가운데 항일무장투쟁론을 국내진공작전과 의열투쟁이 커다란 두 개의 기둥처럼 떠받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글을 통해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서술체계 및 서술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역사 과목은 민족의 정체성과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저자의 국가관과 역사관에 따라 서술 경향과 체계가 달라지기 쉬운 것도 역사 과목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와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전공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라면 학창 시절에 배운 한국사 지식이, 그들의 생애 전반에 차지하는 한국사 지식이 될 수 있다. 이 줄고가 향후 한국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서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 『금성』, 『두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역사부도』 교과서 : 『금성』, 『삼화』, 『지학사』, 『천재교육』
- 2009년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 『동아』,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천재교육』
- 2009년 교육과정 『고등학교 역사부도』 교과서 ; 『금성』
- 2015년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 『금성』, 『동아』, 『리베르』, 『미래엔』, 『비상』, 『씨마스』, 『지학』, 『천재』, 『해냄에듀』
- 2015년 교육과정 『고등학교 역사부도』 교과서 ; 『비상』, 『지학사』, 『천재교육』
- 2015년 교육과정 『고등학교 나라사랑과 보훈』 교과서
- 2022년 교육과정 『한국사Ⅱ』 교과서 : 『동아』, 『리베르스쿨』, 『미래엔』, 『비상』, 『씨마스』, 『지학사』, 『천재』, 『한국학력평가원』, 『해냄에듀』
- 김영범, 1997,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 이명화, 2009, 『현행 교과서 도판 및 부도와 한국독립운동』, 『한국학논총』 제32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이현주, 2009, 『1920년대 재중항일세력의 통일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한철호, 2009,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구국·독립운동사 관련 내용 분석』, 『한국학논총』 제32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황민호, 2012,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만주지역 독립운동사에 대한 서술체계와 내용』 『崇實史學』 제29집, 숭실사학회
- 윤상원, 2013,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러시아지역 독립운동사 서술 현황과 과제』 『史叢』 제79집, 역사연구소
- 강만길, 2018, 『조선민족혁명당과 통일전선』, 창작과비평사

- 신호승, 2018, 「20세기 초 국제 정세 변동과 한인 무장 독립운동」,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신호승, 2020, 「『고등학교 한국사』의 서술 분석 - 무장 독립운동의 개념과 이미지 자료의 활용을 중심으로 -」, 『역사교육』 제156집, 역사교육학회
- 한승훈·남기현,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근대사 체계와 내용 분석」, 『역사교육연구』 제38집, 한국역사교육학회
- 김도형, 2021, 「월로우스 한인비행가양성소 사진 소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5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신주백, 2021, 「1920년의 임시정부 독립전쟁론과 북간도 지역 독립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06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송호정, 2022, 「역사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며」, 『역사와 현실』 제125집, 한국역사연구회
- 임종현, 2022, 「미국 월로우스 한인비행가양성소 건물의 역사 및 건축적 고증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8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한규무, 2022,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광주학생운동 부분에 대한 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12집,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조건, 2024, 「2022년 교육과정 『한국사』교과서의 아시아태평양전쟁 ‘停滯’ 서술 실태와 원인」, 『동국사학』 제81집, 동국역사문화연구소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and suggestion of the description of the “all-out independence war theory” and “anti-Japanese armed struggl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

Kim, Yong-Jin

Until now, textbooks on Korean history have been described as i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大韓民國臨時政府] had neglected military activities due to his focus on diplomatic activities. This was naturally schematized into Syngman Rhee's theory of diplomatic independence[外交獨立運動論], Lee Dong-hwi's theory of anti-Japanese armed struggle[抗日武裝鬪爭論], and Ahn Chang-ho's theory of ability training movement[實力養成運動論], which eventually led to misunderstanding that it provided an excuse for the holding of the 1923 National Representative Assembly[國民代表會議].

However, the ‘Independence War’[獨立戰爭] refers to the active development of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diplomatic independence movements, and ability training movements throughout Japanese colonial era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the independence war as a grand strategic theory. Additionally, there are two specific strategies for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domestic advance operation[國內進攻作戰] and patriotic struggle[義烈鬪爭]. In other

words, the theory of anti-Japanese armed struggle is supported by the domestic advance operation and the patriotic struggle like two large pillars.

In conclusion, the theory of independence war can be said to be a driving shaft[驅動軸] that complements each other like cogs, rather than moving separately between diplomatic independence and ability training movement as well as anti-Japanese armed struggles. As such, the theory of independence war was an “all-out war of independence[全方位的獨立戰爭]” in which the entire nation participated.

Keywords :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高等學校韓國史教科書],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of Korea[韓國獨立運動史], all-out independence war theory[全方位的獨立戰爭論], anti-Japanese armed struggle[抗日武裝鬪爭], patriotic struggle[義烈鬪爭],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大韓民國 臨時政府], domestic advance operation[國內進攻作戰]